이 보고서를 국토통일원 19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 7.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이 원 설

目　　次

Ⅰ. 問題의 提起 3

Ⅱ. 「共産統制」의 理論과 實際 5

Ⅲ. 北韓統制体制의 現況分析 14

A. 統制主体 —— 權力에리트 15

B. 条件지우기 (Conditioning) 17

C. 統制의 方便 —— 住民組織 20

D. 心理統制 23

E. 暴力的 統制 27

Ⅳ. 南北対話와 統制作用分析 29

Ⅴ. 北韓社会統制의 変質可能性 40

1) 外生的 要因 (Exogeneous Factors) 41

A. 貿　易 41

B. 文化交流 42

2) 内生的 要因 (Endogeneous Factors) 43

A. 留 学 生 44

B. 西方世界 接触人士 46

C. 南韓接触 主導人物 48

3) 突然変異 50

A. 中蘇戦争 50

B. 金日成死亡 53

Ⅵ. 맺는 말 —— 우리의 対応 55

I. 問題의 提起

北韓은 史上 類例없이 政治化 (Politicized) 된 統制社会이다. 政治的 統制는 社会의 経済組織, 文化活動, 教育内容 뿐 아니라 個人의 家庭生活, 衣食住問題, 行動規範, 思考등 全 領域에 미치고 있다.

< 헉스레 - Aldous Huxley >의 想像小説 「멋진 新世界」가 仮想한 정도/즉 「튜브」속에서 胎児의 数, 質, 成長등 부터 死亡時까지 「콘트롤」하는 ―에는 未及하다 할지라도 < 오웰 ― George Orwell >의 名著 「1904」가 豫言한 全体統制 (Total control) 社会가 北韓에서 이미 実現되었다.

이 때까지 金日成集団은 国際社会 ―특히 西方世界― 로 부터 비교적 孤立된 閉鎖社会体制속에서 対外接触을 蘇. 中共등 一部 地域에 局限시키고 外生的 刺戟을 回避함으로써 統制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国際情勢가 冷戦時代를 넘어서 이른바 「対話, 協商時代」로 접어들어 가고 또 韓半島에서도 赤十字会談과 南北調節委員会를 통한 南北接触이 頻煩해 짐에 따라 現今의 統制体制에 変動이 豫想된다. 즉 두가지 可能性은 첫째, 外来刺戟이 衝撃的이 되지 않도록 統制를 더 強化할 可能性과 둘째, 外部와의 接触으로 住民의 人間的 慾求가 높아짐에 따라 統制를 弱化시킬 可能性이 共在한다.

좀 더 長期的 眼目으로 볼 때 北韓社会는 ① 西方諸国과의 国

交에서 오는 相互交流, ② 日本資本의 프랜트 輸出등이 초래할 經済体制変化, ③ 北韓에리트層의 海外留学 및 海外旅行의 結果 心理的 変化, ④ 南韓과의 經済, 学術, 文化등 多角的 交流가 可能해질 때 北韓住民들게 줄 影響등을 감안할 때 現今의 北韓統制는 어느 方向으로 변모할 것이냐?

本 研究의 目的은 이 모든 可能性을 多角的으로 検討하여 北韓統制体制의 現況을 理解할 뿐 아니라 未来変動의 可能方向까지 豫測하여 우리의 対策을 講究하는 데 있다.

研究方法은 形態学的 接近, 比較分析, 그리고 콘텐트. 애나리시스等을 併用하여 먼저 北韓의 統制体制를 形態学으로 把握하고 餘他 共産国들과 比較研究한 후 南北会談 当時부터 北韓新聞의 論調内容을 分析한다.

資料는 西方学者들의 全体主義研究書들, 韓国에서 出刊된 論文들, 그리고 北韓의 新聞, 論説, 著書등을 活用했다.

Ⅱ. 「共産統制」의 理論과 実際

「統制」의 語義는 "一定한 計劃에 따라 여러部分으로 나누어진 것을 統一하여 制禦하는 일," 또는 "어떤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모든 部分을 한 原理 밑으로 制約하는 일"로 定義된다.[1)]

歴史的으로 考察하면 統制가 없는 理想社会는 存在하지 않았다. 統制의 目的은 宗教的 理想世界具現, 経済的 인프레 制禦, 政治的 이데오로기実現등 多様했고, 또 그 方法도 法治的, 規範的, 暴力的 手段등 多角的이었지만 歴史上 存在해온 모든 社会는 個人이나 団体(Sub - system)를 統制하는 装置(Control mechanism)를 가졌다.

統制는 社会가 存続하는 데 不可欠한 必要悪인상 싶다. 그 理由는 人性이 孟子의 性善説的이 아니라 荀子의 性悪説에 더 가까운 까닭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厳密히 살펴보면 世界에 散在해 있는 諸社会는 統制의 目的과 그 方法에 있어서 상당한 差異를 露呈하고 있다.

물론 各 社会의 統制를 等差的으로 区分할 判断基準은 없지만 그 目的과 方法이 人道的(Humanistic)이냐 或은 非人間的이냐 하는데서 統制의 質的 差異를 発見할 수 있다.

註 1) 이희승編, 国語大辞典·民衆書舘, 1961, p.2973.

民主社会의 統制는 한 사람의 自由行動이 他人의 自由를 侵害하지 못하도록 制限하는 데 目的이 있다. 統制는 個人의 基本權利와 自由를 보장하는 데 力点이 있다. 그러나 그 範囲가 限定될 뿐 아니라 그 方法도 法에 의해 規制되고 있다.

美国과 같은 民主社会에서도 個人生活 全般에 미치는 政府의 規制(Regulation) 및 統制(Control)은 社会発展이 産業後期段階(Post-industrial stage)에 이름에 따라 점차 더 加重해 가고 있다..

〈레이치 - Charles Reich〉의 「美国의 緑化 - The Greening of America」에 보면 政府統制의 範囲는 ① 銀行利子調整, ② 公立学校教師의 指紋採取, ③ 아파-트에서 動物養育規制등에까지 미친다고 不評하고 있다.[2)]

하지만, 民主社会에 비해 全体主義社会의 統制는 根本的으로 그 目的이 다르다. 그것은 하나의 政治的 「이데오로기」가 志向하는 社会를 만들기 위해 個人의 自由, 慾求, 行動, 希望등 全生活 또 価値観, 善悪観, 人生観등 精神領域까지도 全的으로 犧牲시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물론 古代의 暴君, 寡頭政体 或은 近世初의 專制君主, 絶対主義政体도 最大限의 統制를 志向했었다. 그러나 現今의 科学技術을 마음대로 利用하는 全体主義 統制와는 比較가 안된다.

古代 에집트, 中国, 로-마와 같은 国家主義가 팽만했던 社会에서

註 2) Charles Reich, the Greening of America, N.Y. A national General Co. 1971. pp.100-101

는 君主의 絶対権이 法律의 上位에 君臨했고 個人의 権利는 無視되었었다. 그러나 交通과 通信手段이 未発達状態에 있는 当時의 状況에서는 秦始皇, 「씨자」, 「네로」등의 君主도 全国民의 사소한 일까지 간섭할 수는 없었다.

技術的으로 不可能 했었다. 이런 意味에서 보면 現今의 全体主義 社会는 質的으로 다르다.

〈후레드릭 - Carl friedrik〉의 名著 「全体主義的 独裁와 専制主義」가 말하듯이 現今의 全体主義体制에서는 "歴史的으로 類例가 없는 独特한 것"이다.[3]

〈버먼 - Idarold Berman〉은 全体主義独裁의 定義를 "The adoptation of autocracy to twentieth-Century industrial society"라고 하고 있는 바[4] 이는 現代科学技術이 政治的 独裁와 어떤 相関性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말해준다.

完全統制社会를 志向하는 全体主義에도 두가지 類型이 있다. 그 첫째는, 팻쇼主義인 바 이는 힛틀러時代의 独逸과 뭇소리니時代의 이태리가 그 代表的 史例이다.

両史例가 모두 非合理的, 感情的 「이데오로기」 - 国粋的 民族主義나 人種主義 - 를 具現하기 위해 하나의 独裁者를 中心으로 全体統制를 試図한데 共通点이 있다.

하지만 팻쇼主義나 나치主義以前부터 存在해온 教会를 完全콘트롤

註 3) Carl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Ja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ccracy, N.Y.:Frederick Praeger, 1968, p.3.)

4) Harold Berman, Justice in the U.S.S.K. Cambridge, 1951, p. 238.

하지 못한 点, 個人財産을 除去 못한 点등을 考慮하면 〈힛틀러〉나 〈뭇소리니〉도 完全統制社会를 具現하는 데 失敗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둘째의, 類型 즉 共産全体主義는 더욱 가혹한 統制를 実現했다. 볼쉬빅革命이 成功하자 레닌은 "우리는 새로운 타입의 国家를 創造했다." 라는 말로서 프로레타리아独裁의 出現을 묘사했다.[5)]

이 말은 맑스主義의 国家論에 모순되는 表現이다. 원래 맑스主義는 国家를 "支配階級의 支配機関이며 階級에 의한 階級의 圧迫機関"으로 규정하고 부르조아階級의 御用物인 国家의 統制로 부터 프로레타리아트階級을 解放시키는 데 그 闘争目標를 두었다.

「맑스」에 의하면 "프로레타리아트階級이 国家権力을 掌握하고 生産手段을 国有化하면 모든 階級差別, 階級対立이 揚棄되기 때문에 国家도 衰滅된다." 라고 생각했었다.[6)]

그러나 〈레닌〉은 좀 더 現実主義者였다. 그는 볼쉬빅革命 후에도 "敗北한 부르조아지의 反抗을 粉砕하고, 社会主義의 終局的 勝利를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独裁가 不可欠" 하다고 보았다.[7)]

共産革命은 単純한 政体의 変革이 아니다. 그것은 "부르조아国家가 타버린 잿속에서 誕生한 新形態의 国家" 이다.[8)]

註 5) Brezinski, p.3

6) 社会科学辞典, pp. 65 ~ 66.

7) Ibid. P.730

8) Ibid.

共産主義者들은 權力을 掌握하는 때 革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旧体制를 完全 解体하고 全人口를 再教育, 再組織하는 新形態의 闘争이 시작된다.

歴史로 부터 断絶된 新社会를 人為的으로 創始한다. 그러려면 有形, 無形, 対内.対外의 여러問題와 抵抗勢力에 부디치게 되며, 그 결과로 人民의 完全統制가 不可避하게 된다.

共産統制는 人民의 不満, 慾求, 意慾등을 抹殺하는 힘의 装置인 것이다.

<부르진스키 - Zbigniew Brzezinski>는 共産国家의 統制가 다음의 3個分野에서 内的 統制를 먼저 이룬다는 史例를 지적했다.

첫째는, 共産党 自体의 内的 統制이다. <레닌>은 원래 大衆의 革命遂行能力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멘쉬빅主義와 対抗하면서 오히려 <투카체프 - Peter Tkachev>의 에리뜨論과 맑스主義를 混合하고 小数精鋭党을 組織하여 볼쉬빅革命을 이룩했다.

그러기에 이런 에리뜨党일수록 強力한 内的 統制가 필요하다.

「리-더」를 中心한 完全独裁가 党内 指導権을 위요하여 不可欠하며 모든 党組織, 党宣伝, 党活動은 一人体制를 中心하여 이루어진다. 党의 入党, 党員의 活動은 일일이 감시되며 萬一 党命에 위배되는 일이 発見되면 自家批判을 해야 되며 때에 따라서는 숙청된다. 그러니 党은 実에 있어 政党的 役割을 하는 組織이 아니라 独裁者와 人民間의 "벨트"役割이 主務이고 人民을 감시하고 動員하는 데 存在理由가 있다.

둘째는, 社会団体의 統制이다. 共産国内에는 진정한 의미의 社会団

体란 存在하지 않는다.

社会再組織에 있어서 모든 前近代的 血縁集団이나 近代的 利益団体는 解体되고 共産党의 前衛組織으로서의 労動団体, 農民組合, 青年同盟, 女性同盟, 少年団등이 人為的 下向式으로 急造되며 한 自然人을 여러 団体에 묶어 놓음으로써 前衛組織을 통한 人民統制를 強化한다. 이 모든 社会団体는 그 単位内에 相応한 党単位의 統制를 받으며 또 모든 指導者는 共産党員이 되는 二重 統制를 받는다.

세째는, 軍과 官僚機構의 統制이다. 軍도 하나의 独立的 集団이 아니고 이데오로기 実現의 道具이기 때문에 党의 감시와 政治的 統制를 徹底히 받는다.

官僚機構도 党政策을 遂行하는 道具이며 또 国有化된 모든 生産力을 管理하는 방대한 役割을 담당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와 統制를 받는다. 이렇게 社会内에서 힘을 가지는 모든 組織을 統制하면서 그런 組織力을 가지고 共産独裁者와 그의 周辺에 있는 小数의 에리트는 全体人民을 統制한다.

経済生活, 教育, 文化 심지어는 性生活에 관한 일까지 콘트롤 한다. 共産統制의 手段으로서는 두가지를 大別할 수 있다.

첫째는, 説得에 의한 人民統制다. 言論機関은 모두 党의 御用物인 까닭에 新聞, 라디오등은 共産主義 宣伝의 道具에 불과 하다.

모든 뉴-스는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部分만이 党路線에 따라 変質되어 供給된다. 또 正規教育機関과 一般大衆教育을 위한 프로레타리아 芸術活動의 内容이 모두 人民統制 — 즉 自発的 参与를 조장하는 뜻에서 — 의 手段이다.

둘째는, 暴力에 의한 人民統制다. 共產独裁는 옛 伝統을 破壞하여 새 社会를 人為的으로 組織해 나가는고로 性의 源泉的 慾求까지 무시하게 되어 그 結果로 많은 反抗勢力을 直面하게 되며 따라서 暴力에 의한 統制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民主主義의 경우도 政府는 暴力手段——軍과 警察力등—의 独占을 필요로 하지만 이에비해 共產国家는 全体 테로 (Total terror)를 広範囲하게 制度化한데 그 特徵이 있다.

共產国家의 테로 手段은 否定的으로 反共主義者들을 除去하는 데 그 目的이 局限된 것이 아니라 熱誠이 없는 個人의 마음에 극도로 공포를 줌으로서 参与를 強要하는 積極的 側面도 있는 것이다.

共產国은 항상 仮想敵을 想定하고 国家保禦를 名目으로 人民을 공포화 한다.

소련의 경우 비밀경찰 — CHEKA, GPU, OGPU, NKVD, MGB, MVD, KGB. 등으로 불려온 — 의 기능은 地主残留派 쿨라크 (Kulaks) 들, 宗教人들, 知性人들을 除去하는 役割뿐 아니라 一切의 反対可能勢力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機能도 同時에 해왔다.

共產圈의 모델 소련을 볼때 앞으로 統制가 더 強化될 것이냐 或은 自由化의 方向으로 歷史가 움직여 갈 것이냐 하는 것을 豫測하기란 극히 힘들다.

〈도이처 - I.Deutscher 〉는 「러시아」란 著書에서 소련은 技術化, 科学化, 合理化등의 内的 変化의 결과로 점차로 "民主的 進化" 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豫言했다.[9)]

註 9) ?aul 1. Mason, J .litarianism, N.Y. : D.C. Health and Cc., 1967, pp.106-107.

反面 〈훼인소드 - Merle Fainsod 〉는 크레므린当局이 産業力 및 軍事力을 独占하는 한 独裁的 統制는 無限히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론을 말한다.[10)]

他面 〈브르진스키〉와 〈도이취 - Karl W.Deutsch 〉는 中間的立場에 서서 앞으로 소련의 統制가 弱化는 되지 않을 것이지만 合理化 내지 多元的 分權化될 可能性을 내다보고 있다.[11)]

筆者는 조심스런 楽観論 (Cautious Optimism)의 立場을 취한다. 즉 스타린時代의 統制에 대한 反対는 1956 年 소련共産党 第20次大会에서 露呈되고 共産統治의 어두운 面을 그린 〈두딘체브 - Vladimir Dudintsev 〉의 「빵으로만 살것이 아니오」 등의 自由化를 希求하는 作品도 출간되었다.

비록 「항가리」, 「포오랜드」 등의 自由化運動에 대한 反動으로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一派는 反体制運動에 制動을 걸기는 했지만 지금도 소련内에는 〈솔제니친 - Aleksandra Solzhenitsyn 〉 〈에브트셴코 - Evgeni Evtushenko 〉등의 知性人들에 의한 自由化運動이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으며 〈아말리크 - Andrei Amalric 〉는 "붉은 失楽園"이 과연 「1984年 까지 存続할 것이냐?」란 問題作을 썼다. 또 〈사카로프 - Andrei sakharoa 〉등 科学者들은 "人權委員会"를 조직하여 "모든 職能代表者들 간에는 一般的으로 創意力이 低下되어 왔다"[12)]는 주장을 하면서 自由化와

註 10) Ibid.

11) Ibid., pp.106 ~ 116.

12) 장 - 프랑스와 르벨, 마르크스도 예수도 없는 革命, 朴在斗訳, 서울, 法文社, 1972, p.106.

外部世界와의 더 頻煩한 接触을 促求했다.

물론 一部 知性人이나 科学者들의 요구가 소련의 統制社会를 根本的으로 뒤 흔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소련도 시베리아開発등을 위한 資本主義大国들의 投資가 있어지면 좀 더 開放社会化하는 方向으로 変化하지 않을까 하는 可能性은 내다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北韓統制社会의 本質을 이런 巨視的 眼目을 가지고 直視하면서 앞날의 歷史가 어떤 方向으로 어떤 変化過程을 밟으면서 変質될 것이냐를 研究해야겠다.

Ⅲ. 北韓統制体制의 現況分析

解放後 지금까지의 北韓史를 要約하면 「金日成一派의 統制化過程」이라고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1945 年 소련赤軍을 따라서 帰国한 적은数의 金日成一派 — 33名이라는 說도 있지만 많아도 数百名에 不過 — 가 4半世紀内에 北韓社会를 一元的 放射状組織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는 ① 크레므린의 赤化政策 ② 数百萬 北韓住民의 越南 ③ 6.25 事変時의 戦時統制등 많은 動因에 힘입은바 크리라. 또 金日成個人独裁의 成立過程을 時間的으로 보면 ① 1945 ~ 48 入国에서 政権樹立, ② 1948 ~ 58 南侵, 南労党 및 延安派숙청, ③ 1958 ~ 66 自派의 内部숙청, ④ 1966 年現在 一人唯一体制 確立期등으로 大分할 수 있다.

統制는 金日成政権의 礎石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혼들릴 것인 바 이는 金日成自身의 語録 속에서도 충분히 엿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労動者階級이 資本家들로 부터 権力을 奪取하여 프로레타리아独裁를 樹立한 後에도 政治的 統制는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資本主義로 부터 社会主義体制로, 또 그것으로 부터 共産社会로의 移行은 過渡期를 거쳐야 하는 바 転換期에는 反革命勢力이 창궐하는 까닭에 強力한 統制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植民地로서 従属状態에 있었던 社会에는 植民時代의 残制，封建的 所有関係 粉粋，企業의 国有化등 一次段階를 거친후에도 ① 生産関係의 共産化， ② 農村의 技術革命， ③ 無階級社会実現， ④ 共産社会移行등 諸課題遂行을 위하여 더욱 철저한 統制가 필요하다고 金日成은 力説했다. 1)

金日成은 独裁的 統制의 正当化를 国内 現実에서 뿐 아니라 国際情勢의 現段階에서도 求한다. 過渡期의 프로레타리아独裁와 統制의 相関問題는 "단순히 一国의 国内的 範囲에서 뿐 아니라 世界革命의 終局的 勝利問題와 関聯해서 理解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즉 世界가 共産化 될 때까지 金日成独裁와 政治的 統制는 恒久的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 上述한 理論的 背景을 토대로 北韓의 共産統制体制를 論함에 있어서 ① 労動党内部統制， ② 軍統制， ③ 職能団体統制， ④ 生産組織統制등은 本 研究圏外에 속하기 때문에 省略하기로 하고 단지 住民統制의 方法，様相，装置，問題点등만을 여기서 論하기로 한다.

A. 統制主体 - 権力에리트

住民統制란 北韓社会의 「被支配階級」의 統制를 말한다. 前 유고 副統領 〈질라스 - M.lovan Djilas〉의 말대로 共産党은

註 1) 金炳植，金日成 首相の思想，東京， 1970， pp.147 ～ 158

2) Ibid.， p.162.

旧支配階級을 타도한 후 新支配階級이 스스로 되는데 그 目的이 있다. [3]

北韓에도 〈질라스〉가 말하는 " New Class " 가 成立되었고 階級変動을 일으킬 정도의 社会流動 (Social mobility) 은 이미 사라졌다.

現今의 北韓社会는 일종의 "카스트.시스템"이다. 最高에는 부라마 (Brahma) 에 대조되는 金日成이란 神的存在가 있고 이를 모시는 부라만階級 (Brahmans) 의 司祭들이 共産党 中央委員会의 政治局과 또 党의 秘書局을 차지한다. 이 最高権力의 核을 이루는 에리트의 数는 全人口의 萬分之1도 안되는 小数이지만 이들은 人民軍, 官僚機構, 各種 社会団体, 매스콤등을 網状的, 피라밑型 組織으로 統制하고 있는 것이다.

権力에리트는 権力의 本源体 指導核心으로서 그 自体内의 軋轢, 相互監視, 숙청위협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퍽 安定된 힘의 項点을 이루고 있다.

権力에리트의 手足노릇을 하는 党員들은 1967年現在 170萬名 정도의 人員이다. [4] 이들은 軍, 官, 社会団体등의 中堅幹部들로서 職務를 遂行한다.

党은 피라밑的 網状組織을 가졌는데 말초조직인 初級 里党機構는 里党総会 → 執行委員会 → 秘書 → 分細胞 → 党分組가 있어서 党員

註 3) Milovan Djilas, New Class, N.Y.; Praeger, 1968. p.23

4) 北韓총감, p.70 ~ 90

相互間뿐 아니라 住民監視 및 統制의 役割도 担当한다.

党은 行政府를 掌握하고 「콘트롤」하는데 中央行政組織内에는 社会安全相이 保安局, 偵探局, 警備局, 豫審局, 社会安全局등의 조직을 全国에 펴고 住民을 감시하며 統制한다.

社会의 밑 바닥에는 "파리아 (Pariahs)" 곧 過去 地主, 附日協力者, 宗教人, 越南人士의 친척등이 있다.

北韓政権은 이 疏外層의 数를 全体人口의 약 50%로 본다고 하는데 住民統制의 基本対象이다. 5)

이제 住民統制의 方法을 具体的으로 살펴보자.

B. 条件지우기 (Conditioning)

첫째, 범주는 条件지우기 (Conditioning) 段階 즉 直接統制以前에 이미 스스로 自意에 의해 党命에 服従할 수 있는 人間型 ― 共産主義的 人間이라고 指称되는 이 人間型은 실에 있어 盲目的 服従型 ― 을 만드는 訓練段階가 있다.

〈헉스리〉의 「멋진 新世界」에 나타나는 「新파브로브. 条件지우기 ― New pavlovian Conditioning」 方法과 같이 生後 35日이 경과한 幼児는 託児所에서 共産体制가 바라는 어린이로 教育 育成된다. 政治力의 무서운 조종 (Manipulation)이 人間形成 初期부터 作用한다. 同質化가 強要되는 것이다.

1966年 現在 北韓에는 1日託児所, 週託児所, 月託児所등 都合

註 5) Ibid.

23,251 개와, 1971 年 女性同盟 第4次大会에서 김성애(金日成처)의 報告에 보면 유치원, 託児所에 수용된 아동의 수가 250만이 있었다. 6).

〈헉스리〉의 음산한 豫言과 같이 어린애는 父母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여지가 없이 金日成唯一思想의 洗礼를 毎日 받고 살며 그 悲劇的 例가 南北赤十字会談時 평양에 갔었던 정희경女史가 少年宮殿에서 노는 한 어린애에게 父母이름을 물었드니 몰랐지만 "어버이 金日成"의 出生日도 알고 있드라는 이야기다.

어린이들은 社会化過程으로 부터 Conditioning 이 되기 때문에 삶에 대한 態度, 信念, 行動方式이 모두 盲従型으로 同質化되며 個人으로서의 個性있는 「퍼스나리티」를 形成하지 못하는 性格的 奇型児로 자라난다. 배우는 것을 否定하거나 批判할 能力이 없기 때문에 이런 型의 集団이 強한 힘을 発揮할 수 있는 反面 새로운 状況変革이 있을 때에는 適応力이 없을 弱点을 多分히 内包한다.

어린애가 満9歳가 되면 少年団에 加入해야 한다. 郡単位 社会主義 労動青年同盟의 指導下에 있는 少年団分団은 分団長 1名, 委員 4~6名, 分団員 15~50名으로 組織되며 또 그것은 3~7名의 分組로 나누인다.

少年団에서의 教育을 통한 精神統制状況은 길게 論議할 必要조차 없이 入団誓約書의 内容 즉 "나는 조선소년단에 入団하여 共産主

註6) 北韓의 生活実態, 統一院, 1971.12. p.71

義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면서 준비할 것을 約束한다"에 明示되어 있다. "準備"란 共產的 人間型으로서 唯一思想의 信奉者가 되겠다는 것이다. 7)

少年团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14歲가 될 때 社労青의 盟員이 되며 女子의 경우 17歲에는 女盟에 加入한다.

모든 社会生活이 出生時부터 統制 或은 国家에 의해 豫定 (Predestive)된다.

家庭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人格形成하는 것이 아니라 官製团体의 劃一化된 生活에서 즉 이른바 "組織生活"이 人間形成의 基本要件이다.

실에 있어 北韓에는 "社会構造"라는 用語가 없다. 自然発生的 結社集団은 전혀 許容되지 않으며 단지 人為的으로 形成된 "社会組織"만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組織속에 묶어 얽매고 감시하고 訓練한다.

이런 広義的 意味로 보면 教育機関도 일종의 "条件지우기"를 担当하는 곳이다. 어린이들은 이미 그 社会成分에 따라서 指導者로 育成될 種類와 底級人間으로 1人1技程度에서 教育이 끝날 部類가 義務教育期間中——人民学校와 中学校——決定된다.

「出身成分」은 職業選択에 直接関聯된다.

例컨대 越南人士의 가까운 친척이라면 技術学校로 進学하는 것이 고작이다. 모든 것이 条件지우게 (Conditioned)된다.

学校의 教課程은 특히 心理的 統制의 一方便이다. 思想教育 뿐

註7) Ibid. p.121

아니라 国語，歷史등의 科目도 모두 共産主義的 服從型人間을 키우는 데 主眼点이 있다.

学科目以外에도 映画鑑賞，文学모임，工場見学，生産技術見習，各種体育行事가 党이 요구하는 人間型으로 학생들을 鑄造하는데 求心的集約点이 있다.

학생들은 軍事訓練 뿐 아니라 ① 4.15 金日成生日祝賀行事，② 만경대見学，③ 만경대달리기運動，④ 革命博物舘参観，⑤ 千里馬行事独立運動，⑥ 抗日빨치산回想学習会，⑦ 혁명전적지답사등에 적극적으로 参加해야 한다. 8)

大学은 Conditioning 의 最終機関이다. 모든 講義가 理論보다 政策注入에 主力을 둔다. 越北한 李如星이는 中国 宋代의 名畵에 관한 講義中 그 때에는 赤色을 쓰지 않고서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反政策的이라는 理由로 숙청되었다고 한다.

C. 直接統制의 方便으로의 住民組織

北韓은 組織社会이다. 出生時부터 Conditioning 을 하는 이유로 어린애를 共産主義的 人間型으로 鑄造하여 社会를 組織化하는데 있다.

물론 住民組織化의 目的은 多角的이어서 ① 人民의 労力動員体制確立，② 人民의 同質化，③ 政治 및 社会的 統制등을 이룩하는 手段이다.

註8) Ibid., pp.129 ~ 131.

成人이 되면 모든 사람은 社会, 経済, 文化組織등의 거미줄에 얽혀 매인다. 労動者, 事務員, 言論人, 知識人등은 職業総盟, 農民은 農業勤労者同盟에 加入한다. 文人, 芸術家는 文学芸術総同盟, 朝蘇文化協会, 北朝鮮愛国闘士後援会, 北朝鮮工業技術総聯盟등에서 組織生活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社会組織들은 民主国家에서 보는 利益集団이나 圧力団体가 아니다.

北韓의 社会団体란 党과 住民 사이의 「지렛대」와 「벨트」의 役割을 하는 組織으로서 大衆操作의 媒分体御用団体 生産計劃遂行 및 超過達成의 前衛隊이다.

그것은 "人民의 現在 및 장래의 利益과 目的을 위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統制를 하는 기관이라고 <레닌>은 定義하고 있다.[9]

즉 社会組織은 레닌이 말한대로 "暴力에 立脚한 制限되지 않는 暴力을 사용하는 푸로레타리아独裁"의 道具에 지나지 않는다.[10]

北韓政権은 社会団体를 党과 住民의 「引転帯(벨트)라고 定義한다. 社労青規約 第62条를 보면 "党의 후비대로서 党의 指導下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社労青의 地方組織들은 "해당급의 党組織들의 指導를 받아야 한다.

社労青의 入盟書는 "나는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同志에게 무한히

註 9) 레닌選集, 日語, 東京, 大日書店, 1960, p.60

10) Ibid., p.326

忠直하며 革命先輩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祖国의 統一独立과 共産主義의 종국적 勝利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울것을 盟誓한다." 라고 되어 있다.

例컨대 1972年 12月15日에 萬寿台議事堂에서 開催되었던 農勤盟 2次大会報告書를 보면 이 組織은 同年中 260萬名의 盟員을 動員하여 8,600 ㎞의 제방공사, 3萬㎞의 河川整理, 10萬町歩의 논에서 고이는 물을 빼는 工事를 遂行했다고 한다.[11]

同年 金徳鉱山職盟熱誠者大会에서는 "6年計劃을 4年 앞당겨 돌파할 것을 決議"하는 동시에 ①"우리는 党의 唯一思想을 든든히 세우고, ② 金日成수령의 半世紀에 걸친 栄光의 革命史를 심오히 研究하여, ③ 불구대천의 원수인 美帝와 日帝主義와 격열히 闘争하며, ④ 革命的 組織生活에 적극 参与하여 비판의 方法으로 본보기가 될 것"을 決議했다.[12]

모든 社会団体는 統制組織의 一環이다. 労動党과 같은 피라미트型 組織으로 盟員을 감시한다.

例컨대 職総은 産業別로 金属機械, 建設材業, 化学工業, 運輸港湾, 鉱業, 軽工業, 教育文化, 水産, 交通등의 組織뿐 아니라 各 市道, 郡単位의 基本組織이 網状型으로 労動者들을 組織한다.

특히 中央에는 中央検査委員会가 組織構成員의 모든 行動을 감시한다. 萬一 党路線에 따르지 않는 멤-버가 있으면 行政府에 報

註11) Ibid.

12) 中央放送청취 1~7.

告하여 物理的 제재를 가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团体에 加入함으로서 모든 것이 充足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組織속에 얽매임을 받아야 한다.

例컨대 中学校 校長은 行政府, 党의 縦的, 横的 統制뿐 아니라 社労青, 女性同盟, 教育方法研究会등의 감시를 동시에 받는다.

즉 같은 目的을 가진 많은 社会团体는 自然人들을 多辺, 多角的으로 속박함으로써 党과 金日成에게 무조건 順従하도록 만드는 作用과 機能을 행한다. 個性과 人格을 完全히 抹殺하는 데 모든 統制組織의 궁극적 目標가 있다.

D. 心 理 統 制

住民組織을 통한 一次集团의 抹殺로서 北韓社会는 血縁的 유대가 모두 끊어졌다. 家門과 친척등의 伝統的 集团이 住民의 忠誠을 要求할 수 없는 즉 国家至上의 Statism 이 모든 사람을 支配하는 政治化社会가 実現되었다.

그러나 金日成集团은 이것만으로 満足하지 않는다. 住民들의 自発的 同調와 熱誠도 同時에 要求한다. 自発的 協力을 자아내는 間接統制의 方法中 共産主義者들이 가장 널리 活用하는 것이 「매스.콤」이다.

金日成選集에 보면 「宣伝事業」과 「思想事業의 密接性과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党隊列의 순결성을 保全하고 党의 組織的 原理를 樹立하고 幹部들을 옳게 配置하였다 하더라도 萬一 党 宣伝事業과 思想事業이 잘 되지 않는다면 不可避하게 誤謬와 편향들이 発生할 것이며 党路線과 政策이 正確히 実現되지 못할 것이다.[13]

우선 新聞을 볼 때 1946年度에 23種으로 発行部数가 7萬4千이던 것이 1949年에는 26種으로 発行部数는 22萬2千以上이 되었는데[14] 그 機能은 報道가 아니라 言論을 統制하고 뉴-스를 歪曲하는 데 있다.

内閣機関誌 「民主朝鮮」, 労動党機関誌 「労動新聞」, 祖国戦線機関誌 「祖国戦線」등은 모두 輿論造作의 「메카니즘」이다.[15]

労動新聞의 1個月의 記事를 分析해 보면,

① 政治宣伝 16.4%, ② 対美悪宣伝 13.6%, ③ 対南悪宣伝 10.4%, ④ 増産強要 11.6%, ⑤ 外交宣伝 9.8%, ⑥ 思想, 教養 7.6%, ⑦ 産業経済 8.4%, ⑧ 技術教養 8.1%, ⑨ 文化芸術 5.9%, ⑩ 体育 4.6%, ⑪ 軍事 3.3%, ⑫ 其他 0.3%등의 比率이다.[16]

雑誌도 新聞의 機能과 大同小異하다. 1946年 29種으로 44萬部

註 13) 金日成選集 II,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p.167
14) 朝鮮中央年鑑, 1950, p.366
15) 朴在圭, 北韓社会의 構造的 分析, 미네르바社, 1972. pp. 15 ~ 16.
16) 北韓総鑑, p.100 ~ 120.

発行高가 1949年에는 39種으로 5百萬部로 成長을 보게 되었다.

內閣의 「人民」, 労動党의 「勤労者」, 農民同盟의 「農民」, 女性同盟의 「朝鮮女性」등이 代表的이다.

「라디오」는 特히 共産主義와 金日成唯一体制의 宣伝과 또 宣伝을 통한 住民統制 (Control through propaganda)의 道具이다. 모든 「프로그람」의 內容뿐 아니라 音楽의 「멜로디」에 이르기 까지 金日成 讃揚으로 가득 차 있으며 萬一 唯一思想을 反抗하며는 어떤 刑罰이 加해질 것인가를 은근히 宣伝하고 있다.

輿論操作에 의한 住民의 「心理統制」는 北韓을 完全에 가까운 閉鎖社会로 만듬으로서 公式으로 報道되는 뉴-스以外는 全혀 다른 事実, 事情을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만이 可能하다.

「心理統制」는 歴史歪曲에서 부터 시작한다.

例컨대 8.15解放은 金日成의 抗日遊撃隊가 이루어놓았다는 事実歪曲이다. "거짓말을 하려면 아주 크게 하라"는 <힛틀러>의 前撤을 따라서 住民들의 脳裡에다 金日成을 超人的 英雄으로 즉 反抗할 수 없는 絶対的, 神的, 存在로 만들므로서 住民들의 抗拒를 豫防할 뿐 아니라 宗教的 崇拜의 対象으로 만드는 데 「心理統制」의 目的이 있다.

지금 北韓住民들이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들 즉 「抗日빨치산 参加者들의 回想記」, 「抗日遊撃隊는 어떻게 創建되었는가?」, 「東満革命根拠地의 創設과 反日民族解放闘争의 発展」, 「朝鮮民族의 偉大한 領導者」등은 모두 "독보회"에서 모든 住民이 암송할 정도로 읽어야 한다.

歪曲된 虛相의 洪水 속에서 北韓住民은 每日 洗脳工作을 받는다.

思想統制 (Theught control) 는 〈조지. 오웰〉의 作品「1984」에서 보는 정도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金應源著 「革命과 建設의 20 年」이란 책의 첫 머리에

"全体人民들은 金日成同志를 「民族의 太陽」, 「民族의 英雄」, 「이나라의 새 아침을 가져 온 빛 나는 太陽」으로 우러러 보면서 永遠히 그 이름 만들고 그 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부강한 새 祖国을 建設할 굳은 決意를 다지었다"

라고 있는데 이런 宣伝이 과연 住民의 心理統制에 効果가 있을 것인지 或은 北韓住民은 内心으로는 안 믿으면서도 暴力이 두려워 가만이 있는 것인지를 速断할 수 없다. 17)

결국 北韓의 心理統制政策이 노리는 것은 価値観의 倒錯이다. 文学이나 芸術活動도 党路線과 金日成唯一思想의 宣伝이다.

作品의 「테마」, 内容 時間등 모든 것이 党의 지령에 의한다. 文学에서 「遊擊隊」, 「解放囚」, 「人民抗争歌」, 「青年前衛」등 또 演劇 및 映画에서 「原動力」, 「선구자들」, 「戦友」, 「보천보戦闘」「兵士의 名節」등 또 音楽 및 무용에서 「붉은 깃발」, 「유격대의 딸」, 「복수에 불타는 가슴을 안고」, 「붉은 심장」등의 作品은 모두 劃一的 政治性을 露呈하고 있다.

例컨대 1963 年에서 1970 年 까지의 演劇作品을 素材別로 分類하

註 17) 朴在圭 op.cit., p.11

면 ① 金日成과 그 家族 - 40 %, ② 労力闘争을 素材 - 30 %, ③ 戦争을 고취한 内容 - 20 %, ④ 南韓을 歪曲비방 - 5 %, ⑤ 其他 - 5 %로 되어 있다.[18)]

E. 暴力的 統制

組織과 宣伝에 依한 統制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金日成 偶像化에 대한 반발을 完全히 말살시킬 수는 없는 상 싶다.

住民들 특히 疎外大衆의 心理底辺에 깊게 깔려 있는 不満을 解消할 수 없다.

金日成이 政敵들을 無数히 숙청한 사실은 独裁体制의 内部的 弱点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北韓住民은 法的으로 身分의 高下를 막론하고 国家政治, 経済, 社会, 文化生活의 모든 部門에 있어서 同等한 権利를 가진다. (第 11 条)라고 規定했고 또 "公民은 言論, 出版, 結社, 集合, 群衆大会 및 示威의 自由를 가진다" (第 13 条)라는 말도 있지만 実際로는 人民의 基本権利条項은 完全히 死文化되었다.

住民은 3重, 4重으로 감시를 받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① 反国家行為, ② 反革命行為, ③ 労力動員反対등의 의심을 받으면 社会安全省에 의해 구속되고 고문을 받는다.

暴力은 統制의 가장 基本的 메카니즘이다. 身体上의 고문을 直接 당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것을 받을 可能性이 社会風土化할 때

註 18) Ibid. p.53

사람을 心理的으로 위축시킨다.

暴力의 희생이 될 可能性은 身分의 高下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危脅을 주고 있다. 動乱直後 朴憲永, 李康国, 林和등의 処刑, 「56年危機」의 결과로 崔昌益, 金枓奉, 尹公欽등의 粛清, 61年 労動党 4次大会時 金昌満등의 除去, 67年 労動党中央委総会에서의 이른바 甲山派(咸鏡道出身党人派)의 李孝淳, 朴金喆등의 숙청, 또 1973年 여름 政務委員이며 社会安全部長 金炳何, 労動党 軽工業 및 商業部長인 安承鶴이 除去된 것등은 北韓権力構造内의 体質化한 테로, 메카니즘이 어떻게 週期的 순환운동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史実的으로 말해주고 있다.

表面上 発表된 小数의 희생제물 背後에도 얼마나 많은 暴力의 희생이 있을 것인가를 想像할 수 있다. 또 農場의 集団化, 集団移住強要등이 実行되는 과정에 있어서 数없이 많은 無名人士들이 暴力의 제물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보면 北韓에 있어서 暴力메카니즘의 作用은 週期的 現象과 같이 보인다. 約 7年을 1週期로하여 内的 或은 外的 危脅에 対処하는 統制메카니즘으로 「테로」行為가 恣行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金日成体制는 唯一化가 完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暴力에 의한 숙청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豫見은 잘못이다. 独裁는 強化될수록 内的모순이 深化되기 때문에 테로에 의한 統制를 더욱 必要하게 되는 内生的 法則이 작용하게 된다.

특히 閉鎖化社会体制로 統制를 無制限強化해온 北韓이 이제 開放化를 強要当하는 오늘 南北対話를 위요한 諸新状況앞에서 어떻게 旧体制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与件에 適応해 나갈까하는 것은 本研究의 가장 큰 関心事가 아닐 수 없다.

Ⅳ. 南北対話와 統制作用分析

이른바 対話.和解무드가 国際的으로 급작히 움트기 시작한 1970 年代에 접어 들면서 北韓의 反応은 꽤 당황한 表情이었다. 例컨대 美国의 卓球팀이 北京을 訪問한 事実을 北韓当局은 数個月間이나 発表하지 않았다.

결국 金日成政権이 7.4共同声明에 同意한 動因은 ① 周恩来의 종용 ② 技術 및 資本導入의 必要性 ③ 国際社会에서 平和를 反対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빌딩等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北韓이 南北対話에 임했다는 事実은 결코 社会内의 統制가 緩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史実은 그 反対를 말해 주고 있다. 社会.心理統制는 더욱 強化되고 있으며 모든 일을 我田引水格으로 正当化하여 宣伝하고 있음이 들어나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이 共通的으로 가지는 疑心症과 危機意識은 南北対話의 경우에서도 다분히 作用하는데 특히 金日成政権이 南北交渉에 応하게 된데는 自意的 決意에 의하기 보다는 客観的 情勢에 밀려가는 処地이기 때문에 体制維持的 統制를 強化해야 한다는 二重矛盾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例컨대 赤十字会談에 관한 勤労新聞 1972年2月19日字 論説을 보면 19次 豫備会談의 교착상태를 打開함에 있어서 北韓側이 내놓은 提案은 "어느 모로 보나 가장 合理的으로 다듬어진 것"이여서 "南北記者들도 金泰熙団長의 発言을 좋은 발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신문사에 電話를 걸려고 달려갔고" 南韓代表가 発言을 하자 "会議場 안팎에서 暴笑가 터졌다"라고 一方的인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 結局 "南朝鮮代表가 우리측 提案을 反対할 아무런 건덕지도 찾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그에 同意한다고 말했다"고 宣伝하고 있다. [1])

철저한 報道統制는 住民의 心理統制의 한 方便이다. 赤十字会談은 "南朝鮮側이 그 어떠한 干渉도 없이 完全한 民主主義가 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推進돼야 할 것"이라는 主張을 되풀이 함으로서 南韓市民들에게도 宣伝攻勢를 펴고 있다. [2])

1972年 11月에 서울에서 開催된 才四次 赤十字会談에 관한 北韓의 報道는 特히 철저한 心理統制와 宣伝을 露呈했다. 北韓赤十字代表들은 "판문점에서 서울에 이르는 露呈에서 서울市民들과 南半部人民들로 부터 同胞愛 넘친 뜨거운 歓迎을 받은"것을 마치 南北関係를 우리 祖国統一偉業에 더욱 有利하게 深化発展 시켜 주신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同志에 대한 더함없는 感謝의 정이 어려 있는 것"으로 北韓代表들은 報道하고 있다.

또 金泰熙 一行은 선경합섬주식회사를 돌아보러 水原으로 가는 途中의 일을 다음과 같이 報道했다.

오늘 서울地方은 첫눈이 나리고 찬바람이 일었지만 수많은 남녀땅 형제들은 추위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朝鮮民

註 1) 労動新聞, 1972.2.19

2) Ibid.

主主義人民共和国 赤十字代表団을 태운 乘用車를 보자 일제히 두 손을 들어 열열히 歡迎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労動者, 農民들도 있었으며 어린애들을 이끌고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들도 보였다. 그들은 모두 우리民族의 태양인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首相께서 보내주신 統一 使節団을 맞는 커다란 기쁨을 안고 歡喜와 흥분을 금치못해 손을 흔들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으며 두손을 들어 団結을 表示하는 사람, 눈물이 글썽해서 수고하세요, 統一付託합니다라고 웨치는 사람, 群衆을 제치고 뛰쳐나오는 사람,

실로 그들의 歡迎은 열열하고 뜨거웠다. 3)

金泰熙는 工場에서 勤労者들에게 한 연설 가운데 "오늘 共和国 北半部에는 朝鮮人民의 偉大한 首領 金日成首領님의 현명한 領導밑에 繁栄한 自立的 経済를 建設해 놓았으며 労動者, 農民을 비롯한 全体人民은 衣食住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골고루 다 잘살고 있읍니다"라는 宣伝을 늘어 놓았다.

이런 心理統制의 強化는 住民統制 全般面에 걸친 強化를 意味하는 상 싶다.

具体的 内容은 알 수 없지만 南北対話가 시작한후 北韓의 統制메카니즘은 金日成 唯一思想을 더욱 強化하는데 中心을 두고 作用하

註 3) 月刊 共産圏資料, 1972.11. 極東問題研究所, PP 50-70

고 있는바 現体制維持는 至上課題로 国家権力作用의 求心点이 되고 있다.

南北調節委員会 活動에 관한 北韓言論의 心理統制作用도 赤十字会談을 取扱한 경우와 大同小異하다.

첫째, 南北調節委의 始発点은 北韓言論은 1971年8月6日 행한 金日成의 이른바 "平和統一에 関한 演説"에 두고 있다. 이는 朴大統領의 8.15宣言 보다 9日 앞서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7.4共同声明의 内容은 "金日成 同志께서 提示한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団結의 3大原則"의 具体的 表現이라는 것이다.[4)]

셋째, 앞으로의 調節委 活動의 関鍵은 "民族主体的 力量에 의거하여 自身의 손으로 解決하려는 우리 人民의 투철한 主体精神"에 달렸다는 말로서 外勢排除를 되풀이 하고 있다.[5)]

넷째, "北과 南이 経済.文化.軍事등 各分野에서 合作을 이룩"해야 한다는 모호한 主張으로서 北韓当国은 南北調節委를 何等의 새로울 것이 없는 즉 自己들이 오랫동안 主張해 온 諸原則과 아무런 差異가 없다고 力説하고 있다.

総体的으로 볼때 南北対話가 시작된 이후 北韓의 言論統制, 心理統制는 결코 緩和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強化된 감이 있다. 最近 日本新聞이 報道한 権力構造内部의 粛清煽風은 社会全般面의

註 4) Ibid, PP. 6-7

5) Ibid., P.9

統制를 强化함으로써 変化가 激甚한 国際事情을 잘 넘겨 보려는 努力의 一端을 露呈한상 싶다.

바꾸워 말하면 北韓権力層은 住民에게 그릇된 一方的 報道만 해서 사람의 判断力을 흐리게 할뿐 아니라 住民을 無知状態로 몰아 넣어 無思考의 境地에 둠으로서 体制를 維持하려는 것이다.

西独 社民党 青年組織(JUSO)의 会員들이 北韓을 訪問한후 "国際情勢에 関해 北韓住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그저 反美闘争意識만 가지면 充分하다는게 이들 教育目標일 뿐더러 北韓에는 南韓放送이나 外国으로 부터의 放送을 듣는 사람이 없고 보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韓国俗談을 連想시킨다"고 旅行記를 썼다.[6]

특히 赤十字会談과 南北調節委의 活動이 모두 교착상태에서 아무런 進展을 안 보이자 北韓当局은 「統一革命党」(南韓에서 自然発生的으로 組織이 되었다고 그들이 主張하는)의 이름으로 対南非難放送을 再開했고 世界保健機構(WHO)의 加入과 分断固着化를 認定하려는 西方諸国의 国家承認(6月23日現在 23個国)을 받는등의 情勢를 有利한 転換으로 해석하는 金日成政権은 더욱 오만한 態度로 나오고 있다. 〈빌리.그래함〉의 伝道大会까지 "水原.仁川地区에서 住民들을 強制動員한 鬼神에 매달리려는 狂乱的 푸닥거리 놀음"이라고 悪辣한 욕설을 퍼부었다.[7]

註 6) 中央日報, 1973.6.29

7) 京郷新聞, 1973.6.4

6月23日 朴正熙大統領의 7個項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이 있은후 金日成의 反対提案 즉 ① 高麗聯邦制의 実現, ② 大民族会議 召集, ③ 双方間의 政治, 軍事, 外交, 経済, 文化등 多方面의 協力과 交流등은 새로운 것이 없다. 이때까지 一貫主張해 온 内容들이다.

「国際的 孤児」와 같았던 北韓이 国際聯合加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延期해 가면서 이런 非現実的, 現実不可能한 案들을 들고 나온 底意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対UN政策, 対南工作, 기타 여러가지 動機가 있을 것이지만 이런 側面들의 考察은 本論文 領域外의 일이다.

단지 住民統制的 側面에서 金日成의 6.23 反対提案을 考察해도 相当한 示唆를 얻을 수 있다. 도리켜 보건대 1972年 7.4共同声明이 発表됐을 때 金日成은 그 모든 合意事項이 自己의 原来主張의 具現이라고 대대적으로 住民에게 宣伝했다.

天才的 豫言者인양 金日成을 神格化하는데 7.4共同声明이 利用된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北韓住民들의 마음속에 内面化하도록 一大「캠페인」을 펴가면서 南韓国民들도 金日成의 主張들을 賛同한다고 宣伝했다.

이런 宣伝은 金日成神格化를 통한 唯一思想体系를 強化함으로써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어려운 経済生活現実을 一時라도 망각하고 南北問題에 関心을 돌리게 하려는 政治的 策略이었다. 金日成政権이 住民의 不満을 근심해야할 가장 큰 原因은 무엇보다도 経済問題이다.

北韓経済의 어려움은 1970年11月 萬寿台会議堂에서 満9年만에 開催됐던 朝鮮労動党 才5次大会報告에서 自明해졌다.

原来 5次党大会는 7個年計劃이 끝나는 1967年에 있을 豫定이었으나 7個年計劃이 中途挫折되고 3個年 더 延長됨으로서 1970年11月(10月에 召集公告가 났었던 것이 아무런 説明없이 1個月延期)에야 열렸다. 또 慣例를 어기고 소聯과 中共代表가 招請되지 않았는데 金日成政権이 가진 苦悶의 一端을 엿볼 수 있다. 金一 才一副首相의 報告를 分析해 보면 7個年計劃이 3年間이나 延長됐었지만 当初의 目標量에 훨씬 未達된 事実이 露呈됐다. 사실 中央統計局通報에도 1966年度와 1969年度 経済成長率이 発表되지 않았었는데 이 両年의 成長은 「제로」였다는 推算이 있다.[8)] 計量的으로 보면 7個年計劃의 当初의 穀物生産目標量이 70萬屯이었는데 約 500萬屯에 머물렀고 重工業部門의 70年度 生産目標는 電力 165萬KW, 石炭 2,700萬屯, 鋼鉄 220萬屯, 化学肥料 150萬屯 세멘트 400萬屯이었는데 石炭을 除外하고는 보다 目標量의 下限数字뿐이다. 特히 1960年12月에 締結된 소朝経済技術協力協定때 約束됐던 200萬屯級의 原油工場은 아직 그 実現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経済現実을 엄폐하는데 있어서 金日成은 더욱 強力한 政治統制를 試図했는데 그 結果로 나타났던 現状이 唯一思想, 主体思

註 8) 林建彦 北朝鮮と 南朝鮮, 東京, サイマル出版会, 1971. PP. 197-99.

想등이다. 1966年이후 經済的 어려움의 深化와 唯一思想의 高調는 反比例的으로 增大現状을 나타냈다.

上述한 才5次党大会에서도 金日成의 権力強化를 위한 一種의 政治的 粛清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자리를 維持했던 中央委員 85名과 同候補委員 50名 都合 135名中 83名이 除去됐다. 結局 「에코노미스트」라고 불리우던 「技術官僚」들이 党主導核에서 脱落되고 「軍閥官僚」라고 볼 수 있는 옛 金日成게라라隊員들이 높이 登用되었으며 金英柱(6位) 金聖愛(23位)등 「家族族閥主義」가 支配的이 되었다.

5次党大会時 討論에 나선 朴成哲은 「革命의 偉大한 首領이시며 天才的 마르크스.레닌主義者 金日成同志」「敬愛하는 首領 金日成同志」등의 呼称이 50餘回나 使用했다.[9]

1971年12月 開催됐던 朝鮮職業総同盟 才5次大会報告書에는 同呼称이 308次, 또 같은 해에 있었던 社会主義労動青年同盟 才6次大会에서 委員長 김시학이 행한 報告演説에는 201回나 나타났다.[10]

이런 背景에서 볼때 現今 北韓住民들은 経済生活의 重圧과 唯一思想의 狂的 強要로 不満이 内面化되어 있을 것이다. 분출구를 찾지 못한 不満은 어떤 契機가 있을 때 爆発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南北対話의 期待가 空手票로 化해 가는데서 오는 空虚感도 있을 것이다.

註 9) Ibid.

10) 月刊 共産圏資料, 1971.12. 極東問題研究所, PP.10~56., Ibid., 1971.6.7. PP 16 ~ 81

그러나 金日成이 朴正熙大統領의 6.23 宣言에 対抗해서 들고 나온 「大民族会議」召集,「高麗聯邦制」実施등은 다분이 住民統制的 目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金日成 政権은 民族会議 召集을 要求하는 群衆大会를 各処에서 열고 있는바 이런 새 口号를 求心点으로 삼아 住民의 士気를 높이며 住民들-특히 権力에서 소외된-의 心理的 不満의 噴出口를 열어 보자는 속셈인듯 하다.[11)]

특히 聯邦制는 1960年8月15日 金日成이 最初로 들고 나왔다가 1969年8.15記念時 金一 才一副首相이 다시 提起했고 그후 1971年4月12日 許淡外相이 또 다시 되풀이 했던 것인데 이번 金日成이 再提案한 속셈은 ① 駐韓美軍撤収를 앞당기려는 속셈, ② 南韓의 広範한 階層의 支持를 얻으려는 속셈, ③ 分断現実固定化의 責任을 転嫁하려는 속셈등이 있을 것이지만 이에 못지 안는 理由는 「高麗」라는 伝統的 称号를 復活함으로써 北韓에서 40代以上의 年齢層에 潜在해 있는 民族主義에 呼訴하여 그들의 支持를 얻으려는 体制維持的 속셈도 強하게 作用하고 있는상 싶다.[12)]
極東問題研究所가 最近 내놓은 「北韓은 왜 『南北聯邦制』를 主張하는가?」라는 小冊子는 金日成政権의 意図를 다음과 같이 分析하

註 11) 北韓은 왜 「大民族会議」를 主張하는가? 極東問題研究所, 팜프렡, PP.19-20

12) 北韓은 왜 「南北聯邦制」를 主張하는가? 極東問題研究所, 팜프렡, PP.25~33.

고 있다.

″北韓当局은 住民의 意識 構造에 唯一思想을 徹底히 内面化하는……方針임으로 南北聯邦制와 「高麗聯邦共和国」国号의 宣伝教養을 통한 内部統制의 強化策은 当然히 要請되는 것이다.

그들은 金日成이 高麗聯邦制를 提示한 이후 기금까지 「高麗聯邦共和国」을 支持하는 宣伝과 群衆集会를 連日 開催하고 있다. 이러한 集会는 곧 南北対話로 因한 住民思想의 解弛와 対話를 통한 그들의 戦略의 蹉跌에서 오는 統一成就意慾의 減退가 塗炭에 빠진 住民生活相과 겹쳐 金日成의 領導에 대한 期待感이 懸隔히 稀薄해졌다는 内部事情을 反証하는 것이라 한다. 13)

金日成의 対南政策은 対内政策의 한 方便이기도 하다. 그가 부르짖는 統一政策은 실에 있어 住民統制의 한 수단이기도 하다. 自己世代에 実現이 不可能할 큰 課題를 내걸고서는 그 目的이 具現될때까지 対内統制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独裁永久化의 口実로 삼는다.

南北対話이후 北韓의 住民統制는 決코 解弛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強化됐다는 것이 本研究의 結論이다. 앞으로도 이 現象은 별로

註 13) Ibid., P.33

變치 않을 것이다. 南北接触이 잦으면 잦을 수록 住民統制를 위한 言論的 暴力的 方便의 活用은 比例的으로 強化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北韓의 住民統制는 無限定으로 強化될 것이냐? 그것이 弱化되거나 부러질 可能性은 全혀 없는 것일까? 이 質問에 自信을 가지고 答할 사람은 아마도 없으리라 하지만 北韓에서 住民統制가 「보레이크. 다운」되거나 弱化될 수 있는 可能性을 만들 変数들은 이미 상당한 힘을 가지고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이제 本論文은 그 変数들의 內容을 外生的 (exogeueous)과 內生的 (endogeneous)要因들, 그리고 突然変異的 可能態들로 大分하여 살펴 보고저 한다.

V. 北韓社会統制의 變質可能性

<브르진스키 - Zbigniew Brzezinski>가 지적했드시 아무리 強力한 統制社会를 이룬 全体主義体制도 時間的潮流 속에서 일어나는 歷史的 変化의 洗礼를 막을 수 없다.[1]

소聯社会도 1953年 스타린死後 지금까지 현저하게 변모했다.「시베리아」発展을 위해서 美国과 日本의 資本이 유치될 정도로 또 韓国의 文人, 記者, 実業人들이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市街를 거닐고 다닐 程度로 変했다.

<세라노~Ramon Serrano Suner>은 스페인의 프랑코政權樹立의 큰 功労者이며 또 外相을 오랫동안 지낸 사람이지만 現今의 스페인政權은 1930年代에 自己同志들이 가졌던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변질되었다고 News Week記者에게 不平을 하고 있다.[2]

金日成政權도 歷史의 例外者일 수 없다. 変化의 質과 그 方向이 어떤 것이던 간에 北韓社会도 이때까지 変化의 歷程을 걸어왔다. 이제 国際和解의 물결이 極東情勢를 根本的으로 뒤흔드는 이때에 北韓의 統制시스템도 相当히 変質될 것으로 展望된다.

註 1) Garl G.Friedrich and Zbigniew K.Brzezinski, op cit., PP. 3~27

2) News Week, guhl 23. 1973. P.56.

1) 外生的 要因 (Exogeneous Factors)

A) 貿 易 ——北韓社会를 開放할 수 있고 全体主義的 統制를 弱化할 可能性을 지닌 가장 큰 要因은 対外貿易이다. 世界가 地球村化해 가는 오늘 国際社会로 부터 完全히 孤立하여 経済発展을 期한다는 것은 緣木求魚格이다. 原料와 商品의 流通뿐 아니라 技術向上에 있어서도 経済의 国際性을 등한이 할 수 없다.

얼마전까지 北韓은 共産世界의 諸友邦国들과만 交易을 하다가 中立国家들 및 西独, 英国, 프랑스, 오스트리아, 伊太利등 西方諸国과도 交易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漸次로 더 活潑한 国際貿易이 豫想된다.

日本外務省推計에 의하면 北韓의 年 貿易総額은 現在 5.5億弗을 上廻하는데 対蘇貿易이 그 40%를 차지하며 其他는 東欧, 日本, 中立国家群들과 인바, 西欧諸国의 比重은 漸次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3] 例컨대 프랑스首都 파리市에는 北韓民間級 貿易代表部가 1968年에야 設置를 봤는데 1972年에는 1,100萬弗의 輸出, 700萬弗의 輸入을 하는 実績을 올렸다.

特히 日本과의 貿易에 있어서는 日朝協会를 통해 覚書貿易이 進行되어 왔는데 北韓은 생선, 鉄鉱, 亜鉛, 銀등을 輸出하는 반면 日本으로 부터는 機械, 化学製品등을 輸入해 왔다.

北韓의 貿易構造를 分析하는 것은 本論文의 論究対象이 아니지만

註 3) 金潤煥, "北韓貿易의 問題点과 그 展望" 北韓, 1973年4月号, P.66.

그 拡大의 結果가 「콘트롤.시스템」을 어떻게 変質시킬 것인가를 가이 推測할 수 있다.

貿易은 開放社会의 産母이다. 西方諸国들과 交易을 拡大함은 文化借用,技術借用,人的交流의 拡張을 의미한다. 商品을 따라서 새 生活様式,思考方式,倫値観 등이 北韓社会에도 들어 올 수 있다.

스타린 死後의 蘇聯을 보라. 지금 〈브레즈네프〉를 위시한 크레므린統治者들은 그 衣服스타일,飲食,취미,娯楽生活,심지어는 「바캉스」를 즐기는 것 까지가 모두 西欧의 上流 브르조아階級과 恰似하다는 말이 있다. 蘇聯의 젊은 世代들은 既存秩序에 反抗的이다. 〈아말리크 —— Andre, Amalric〉같은 知性人은 "붉은 失楽園"이 과연 「1984年까지 存続할 것이냐?」라는 問題作을 저술했다. 이제 앞으로 美.日資本이 共同으로 시베리아를 開発하는 경우 蘇聯社会는 더욱 開放化될 것이며 그와 正比例하여 統制도 弱化될 것으로 豫想하는바 이와 비슷한 変化가 北韓에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法은 없다.

B) 文化交流 —— 貿易拡大와 더부러 併行하여 促進될 것이 文化交流 —— 特히 西方世界와 —— 이다. 이미 北韓은 덴마-크, 놀웨이, 스웨덴,핀랜드等 54個国에 154個 親北韓民間団体들을 조직하여 金日成政権의 宣伝道具化하고 있다.

原来 北韓에 있어서 大衆芸術의 基本単位는 各工場,企業所,農場漁村,学校등이며 이 모든 単位에서 約 62,800個의 文芸써클이 演劇,무용,音楽등을 演習하기 때문에 相当한 水準의 芸術団을 海

外로 派送할 実力이 있으며 그 한 例가 지난번 西欧를 巡廻한 바레이团이다.

또 最近에는 北韓의 스포츠팀들의 海外進出도 현저하다. 蹴球를 위시하여 많은 運動팀들이 海外를 訪問한다.

反面 北韓의 招請을 받고 相当数의 外国人士들이 北韓을 訪問했다. 1965年까지만 해도 「말리」의 「모리보케이다」大統領, 印尼의 「스카르노」大統領 등이 訪問했지만 最近에는 뉴-욕.타임즈誌의 「해리슨.솔즈베리」記者, 하바-드大学의 <제롬.코헨>教授등 「美帝国主義者?」의 知性人들도 平壤을 訪問했다. <코헨>教授는 故 鄭準沢등 여러 高級幹部들과 長時間 対話를 나눴다고 한다.

勿論 文化交流, 人的交流의 可視的 結果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놀드.토인비>가 말하는 " One thing leads to another "의 法則이 여기에서 作用함으로써 여러가지로 豫想치 못했던 副産物이 배출되는 것이다. 北韓의 統制体制가 国際的 文化衝擊을 継続받을 때 그대로 維持될 수 있을까?

2) 内生的 要因 (Endogeneous Factors)

金日成政権의 統制씨스템을 根本的으로 뒤흔들 수 있는 内生的힘이 現在 北韓社会의 下層構造를 이루고 있는 疎外階層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質問에 대한 解答은 容易치 않다. 하지만 北韓社会의 内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우선 否定的 答을 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 住民의 50% 以上을 차지하는 疎外層(越

南人士家族, 宗教人, 旧地主등)은 그야말로 監視의 対象이며 統制力의 目標物이다. 그들은 이미 他処로 移住를 強要当했으며 精神的 肉体的으로 無気力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統制를 弱化할 힘의 出処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A) 留学生 —— 周知하는바 지금 金日成政権의 中核을 이루고 있는 権力核(곧 党中央委員 117名中 政治委員会 11名과 후보위원 5名, 그리고 秘書局의 総秘書 및 秘書 11名 —— 自然人으로는 14名)을 分析해 보면 大部分이 高等教育을 받지 못했다. 朴成哲(日本 上智大学)을 除外하고는 正規 高等教育을 받지 못했을뿐 아니라 中共의 周恩来와 같이 西欧教育을 받은 자는 1名도 없다. 단지 例外가 있다면 金英柱와 같이 解放後 蘇聯에 留学한 者가 極少数 있다.

하지만 無識한 上層部만으로 政権을 維持할 수 없기 때문에 解放後 蘇聯에 留学한 사람들이 党中央委 序列 30番以下에는 相当数가 進出하고 있음을 본다.

例컨대 金英柱系로 알려진 유장식(労動党 組織指導部長-33位) 許談(外務相 34位), 김병하(社会安全相-35位)등은 모두 모스코바에 留学했으며 앞으로 이들이 最高権力上層으로 進出할 경우 좀더 合理的 思考方式으로 行動하리라는 豫測도 있다.[4)]

註 4) 유완식, 北韓権力構造変動이 北韓社会体制에 미치는 影響, 国土統一院, 1972.10. PP. 101-2

確実히 金日成政権은 老衰하고 있다. 金日成, 최용건, 金一, 최현 等 最高幹部들이 老年期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解放後世代의 進出이 最近 현저해졌다. 1970年 第5次党大会때에 新人들의 進出은 특히 括目할만 했는데 党中央委에 새로이 들어간 58名中 大部分이 第2世代며[5] 그중 相当数가 海外留学을 한 사람들이라 한다.

이제 앞으로 経済発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科学者, 技術者, 医師, 教授등이 必要할 것인바 高度의 学問研究는 海外留学을 要請한다. 蘇聯과의 関係改善이 된 1967年 以後 더 많은 留学生들이 蘇聯을 為始한 東欧諸国으로 進出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金日成政権의 고민이 있다. 蘇聯은 이미 옛날의 스타린体制下의 全体主義体制에서 相当히 変質되었다. 自由化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솔제니친〉등의 文人, 〈사카로브〉등의 科学者들이 思考의 自由를 부르짖고 있다. 「포오랜드」는 〈고물카〉의 治下에서도 農土의 約 30%가 個人所有化되는 変化가 일어났다. 「체코스로바키아」도 〈듀브체크〉以後 自由化에 대한 慾求를 強圧的 統制体制만으로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相当한 양보를 政府가 하고 있다.

이런 変化된 共産国들에 留学하고 돌아가는 北韓学生들의 心情에 어떤 変化가 일어날까? 個人偶像化時代가 지난간 先進 共産国들을

註5) 안병영, 北韓社会의 変動可能性과 自由化方案에 관한 研究, 国土統一院, 1972.6. P.41

돌아보고 그 나라들의 분위기를 体験할 때 相当한 精神的 変化가 있을 것으로 豫測된다. 이런 新進 「에리트」들이 要職에 있고 権力核에 들어갈 수록 北韓의 統制시스템도 比例的으로 合理的 方向으로 움직일 可能性이 있다고 본다.

B) 西方世界 接触人士 ——— 1970 年代에 들어 와서 北韓은 情報社会化하는 世界추세에서 落後된 孤立性을 벗어 보려는 努力을 의식적으로 하는 底意를 露呈했다. 勿論 過去에도 外交的 努力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50 年代는 유.엔에서 侵略者로 烙印이 찍힘으로 인해서 또 1960 年代는 中蘇紛争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自主路線宣言 (66 年 8 月) 을 하는등 対共産圏内의 問題에휘말려서 별로 括目할만한 外交活動을 못했었다.

1970 年代에 접어들며 北韓의 括目할 外交活動展開方法은 人民外交手段을 통해서 먼저 外国의 著名人士를 招請하고 또 招請을 받는 것인데 人民外交의 初期 対象은 아프리카 및 中東의 低開発国家들이었다. 例컨대 1971 年 5 月 北韓親善代表団이 「수단」을 訪問, 同年 10 月 「소마리아」訪問, 11 月 蹴球選手団 「이락」訪問, 同月, 映画代表団 「시리아」訪問, 同月 金日成綜合大学代表団 「에집트」訪問, 同月 社労青代表団 「탄자니카」訪問등이 알려졌다.

1972年부터는 1月中 才11次 冬期올림픽競技에 参加次 北韓스포츠팀이 日本을 訪問한 것을 嚆矢로 하여 「덴마크」등 西欧国家들과도 接触을 가지면서 특히 「칠레」에 맑스主義를 표방하는 政権이 樹立되자 南美諸国에도 親善使節団을 派送했다.

今年 즉 1973年1月5日엔 前外相이며 現蘇聯大使 권희경이 仏蘭西를 訪問해서 亜洲局長 Froment Maurice 등과 要談을 했는데 68年度부터 「파리」에 設置된 北韓貿易代表部의 活躍은 자못 括目할만 하다.

하지만 北韓의 外交努力이 今年 봄과 같이 活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金日成政権은 지난 2月부터 5月中旬에 이르는 長期間동안 長次官級의 高位層을 団長으로 하는 17個 代表団을 組織하여 67個의 国家들을 訪問하면서 親善外交를 폈다. 勿論 今秋에 있을 유.엔総会에 対備한 布陣으로 볼 수 있다.[6)]

그 結果로 당장 나타난 成果가 「감비아」 「모리셔스」, 「리비아」, 「이란」등의 承認과 특히 北欧 5個国의 国家承認이었다. 勿論 이 巡訪外交의 方法이나 成果를 論하는 것이 이 글의 目的이 아니다. 단지 그렇게 많은 指導級 사람들이 海外 여러 나라를 봤을 때 心理底辺에 어떤 変化가 전혀 없었을까 하는 의문에 이 글의 目的이 있다.

心理的 変化일 수록 変化를 測定할 基準이 없다. 海外에 나가서도 北韓外交使節団員들은 상호 감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言動은 金日成唯一思想을 그대로 具現했다고 한다. 例컨대 「덴마크」의 「인포메이션」紙의 報道에 의하면 "北韓外交使節은 아주 具体的이

註 6) 金奉玹, "北韓의 巡訪外交의 底意十字軍, 1973.5.25 PP 4 - 6

고 技術的인 問題에 対한 質問을 받고서도 반드시 金日成의 말을 引用해서 対答했으며〃 또 金日成 主体思想을 강연조로 말했기 때문에 이에 지친 「덴마크」官吏들이 〃문을 열어 놓고 수차에 걸쳐 나가도록 說得했으나 失敗한 일까지 있다〃고 한다.[7)]

表面上으로는 外国의 文物에 현혹됨이 없이 金日成唯一思想을 強하게 유지한듯한 印象이지만 그들의 内心에 약간의 의혹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断定도 할 수 없지 않을까? 筆者의 생각으로는 海外接触이 많으면 많을 수록 사람들의 価値観이 변할 계기가 많다고 본다. 이들중 특히 西欧社会와의 接触을 많이 가진 人士는 처음에 資本主義를 憎悪하는 눈으로 西欧를 봤을지 모르지만 相当한 心的 変化가 있었다고 본다.

이제 이런 人士들이 統制시스템의 強弱을 測定하는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
海外接触이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이 登用되면 統制가 弱化될 可能性이 짙어지고 反面 그들이 去勢되는 現象은 統制強化의 증후가 아닐까 생각된다.

C) 南韓接触 主導人物 ——南北対話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초부터 北쪽 主動人物인 金英柱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데 대해서는 구구한 억측이 떠돌았다. 金英柱가 지금도 身病으로 海外治療를 하고 있을리 없으나 아직 調節委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註7) 京郷新聞, 1973.8.3

萬一 南北交涉이 잘 進行이 되지않을 경우 朴成哲(원래 滿洲에서 최용건의 部下로서 金日成部隊에 가담)을 「스케이프.고트」化할 心算이 아닌가 하는 見解도 있다.

北赤팀의 構成도 마찬가지이다. 金泰熙는 勞動党 中央委員名単에도 끼지 못하는存在이며 팀의 実權은 윤기복(62位)에 있음이 틀림없다. 이런 構成의 理由도 萬一 赤十字会談이 如意치 않게 될때 그 責任을 金泰熙에게 돌려 그를 粛清의 제물로 삼으려는 저의가 있음직 하다.

如何튼 全体的으로 봐서 赤十字팀과 南北調節委팀은 南北会談이 失敗할 때를 対備한 豫備線을 치고 있는상 싶다. 그렇다고 유장식,김덕현등 앞날에 活動이 더욱 活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항간에 도는 이야기와 같이 北韓代表들은 서울을 訪問하면서 자기들이 듣고 豫期했던 모습과는 전혀 판이한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그 증거로는 北韓女性들의 옷차림에 変化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板門店 会談席上에서 茶를 날라온 北韓 아가씨들의 치마길이가 점점 짧아졌다는 이야기는 金日成体制下의 心理的 統制가 아무리 철저하다 해도 그 限界가 있다는 것을 証明하는 것이다. 즉 人間性의 源泉的 慾求만은 金日成의 唯一思想洗礼로서도 어찌할 수 없다는 事実이다.

아무리 狂信的 金日成信奉者일지라도 南韓을 訪問하고 돌아간 사람은 그곳에 있는 "우물안의 개구리"들 보다는 훨씬 相異한 마

음의 変化를 가질 것으로 筆者는 생각한다.

그러니 앞으로 南北接触을 하는 北韓人士들이 더욱 많기를 바라며 또 그 사람들이 北韓権力構造 안에서 上昇한다면 社会가 좀더 合理的 方向으로 움직일 可能性이 크다. 統制方法도 좀더 合理的으로 재조정될 可能性이 커진다. 反面 南北接触을 하는 人士들이 粛清의 対象이 된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警鐘이 된다.

3) 突然変異 —— 上述한바 北韓社会의 統制시스템을 変質할 可視的 可能性 以外에도 우리가 豫期할 수 없는 突然한 変異 즉 突発的 事件이 이러날 수도 있다. 突発事件이 일어날 수 있는 分野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可能性이 짙다고 볼 수 있는 두가지는 中蘇戦争의 발발과 金日成의 死亡을 생각할 수 있다.

A) 中蘇戦争 ——急変하는 아시아情勢를 더 急하게 変造할 수 있는 突発的 事件들을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시베리아」開発을 위요한 日蘇両国의 急激한 和解 혹은 貿易戦争과 資源戦争으로 因한 美日両国의 더 격심한 紛争等이 周辺国家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月末에 있었던 닉슨.田中会談의 結果를 봐서는 現美日体制의 큰 変異가 있을것 같지 않고 또 「시베리아」開発도 美日共同으로 進行할 可能性이 크다.

이런 見地에서 볼때 中蘇紛争은 앞으로 極東情勢에 무엇보다도 큰 影響을 줄 重大한 뜻을 가진다. 北韓内部의 権力構造와 統制

시스템에도 크게 그 영향을 줄 것이다.

中蘇紛争이 「百年戦争化」할 또 解決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理由中 가장 큰 것은 그 歴史性에 있다고 본다.

원래 中国人들은 帝政러시아가 強圧的으로 1858年 愛琿条愛, 1860年 北京条約등 不平等条約들에 의해서 中国으로 부터 뺏은 「시베리아」 및 中아시아의 広大한 地域을 되찾으려는 民族主義的 열망이 있으며 특히 国境地帯에서 地下資源이 発見됨에 따라 4,000餘哩의 国境線을 위요한 紛争이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이다.

또 蘇聯은 中国共産党 闘争過程에 있어서 미묘한 不信感情을 자아내게 했는데 ① 1930年代 中期에 이르기까지 <스타린>은 毛沢東을 지지하지 않았고 李立三을 내세우다가 「長征」 끝날무렵에야 毛의 指導権을 認定한 것, ② 1956年 「항가리」事態以後 蘇聯은 対中共 経済援助를 大幅 削減한 것, ③ 「크레므린」이 中共의 核開発에 協力하지 않은 것, ④ 平和共存政策을 둘러 싼 理念論争, ⑤ 世界共産主義運動 지도권을 위요한 争闘等을 들 수 있다. 両国間의 論争은 越南戦争을 놓고 激化되다가 1969年3月 「다만스키」島 紛争으로 軍事的 격돌사태까지 빚고야 말았다.

앞으로는 中蘇紛争은 激化될 展望이 크다. 中共은 伝統的「大陸指向的」 思考로서 国境을 守備할 것이고 蘇聯은 시베리아 開発을 위해선 満洲까지 不可缺하다는 見解를 深化할지도 모른다. 蘇聯은 「시베리아」의 6千萬人口 約 $\frac{2}{3}$가 有色人種임을 두려워 하는 反面 中共은 蘇聯海軍의 進出을 저어하고 있다.

中蘇紛爭에서 金日成政權은 過去 蘇聯에 입은 恩惠(?)를 忘却한양 中共에 接近했다가 1966年에는 蘇聯의 經済援助를 또다시 받아들이면서 翌年엔 金一 才一副首相을 団長으로 한 訪蘇使節団을 파견하는등 中蘇間에서 振子運動을 했다. 反面 中共과는 사이가 벌어져서 1964年10月 国慶節에 崔庸健団長이 引率한 慶祝使節団이 北京을 訪問한 이후 首脳級 相互訪問이 두절됐으며 1966年 北韓政權創建 20週年紀念式에는 中共代表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1969 ~ 70年에야 中共과 北韓의 関係가 다시 改善되며 周恩来가 平壤을 訪問하고 玄俊極駐中共大使 帰任, 李雲川駐平壤大使 赴任등 새 転局이 마련됐다.

이런 外交上 中蘇紛争의 영향은 北韓에 自主路線이란 外交路線과 唯一思想強化라는 対内政策을 산출함으로써 住民統制는 過去 어느때보다도 더 強力해졌다. 国際変動의 어려움과 経済問題를 打開하기 위해서 金日成政權은 「全人民武装化, 全国土要塞化, 全軍幹部化, 全軍現代化, 施設의 地下化, 民防動員化, 全国科学化등을 口号로 내세우면서 住民統制強化를 正当化했고 金日成唯一体制와 「네포티즘」을 強化했다.

이러 背景에서 볼때 中蘇戰争이 萬一 발발한다면 自主路線과 金日成唯一思想이 더욱 強要될 것이지만 그런 曲芸는 오히려 北京과 「모스크바」의 不信을 同時에 사서 双方으로부터 경원시 되는 同時에 혹 金日成打倒謀議가 中共이나 蘇聯에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B) 金日成死亡 —— 金日成唯一思想으로 住民統制를 強化하는 일은 近視的으로는 有効하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遠視的으로는 北韓社会에 더 큰 混乱을 招来할 危険을 内包하고 있다.

偶像化된 金日成이 急死하는 경우를 가상할 때 그후 따르는 混乱이 어떠할까? 確実히 北韓의 政権싸움, 後継싸움은 胡志明이후 越盟의 「패턴」이 아니라 <스타린>死後의 蘇聯의 派争과 같을 것이다.

金日成은 이것을 念慮하는양 自己 祖上들을 「聖族化」하고 동생 金英柱를 序列 6位에 끌어 올림으로서 後継者로 지목했으며 党中央委안에도 유장식, 許淡, 김병하 등 金英柱 直系를 多数 登用했다. 하지만 解放後 「모스코바」까지 留学한 金英柱는 知性的이 못될뿐 아니라 指導能力이 없으며 또 神経疾患을 앓고 있다는 말이 있다.

萬一 金日成 死亡後 金英柱 後継問題가 원만히 안되고 金一등의 元老들로서 集団体制가 北韓을 支配한다면 지금과 같은 体制가 維持될까? 解放後 金日成大学을 卒業한 才2世代의 심각한 挑戦을 받게 될 것이다.

金日成 死亡後 세가지 可能性 —— 즉 ① 金英柱가 後継者가 되는 경우, ② 集団体制가 되는 경우, ③ 才2世代가 主導権을 쥐는 경우 ——가운대 어느 것이 的中되던간에 現在와 같이 強力한 住民統制는 維持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神格化된 심볼이 없고 住民들도 過度統制를 그 以上 참지 못할 것이다.

疎外層(全住民의 50%以上이 되는)은 그들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

如何튼 筆者의 생각으로는 北韓의 住民統制가 人間性으로 더 以上 참을 수 없는 限界点에 到達했다고 본다. 金日成 生存時는 그대로 維持될지 모르지만 死亡하면 東欧諸国이나 蘇聯에서 오늘 보는 것과 같은 変化가 올 것이다. 統制가 弱化될 것이다.

그렇다고 弱化되는 統制가 自由化를 초래하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自由化란 社会, 経済, 知性, 文化등, 各分野에 걸친 바탕이 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筆者는 〈브르진스키〉교수의 지론과 같이 北韓의 全体主義統制도 좀더 合理的 方向으로 変質될 것이라고 본다. 合理化되는 全体主義統制의 모델은 「체코스로바키아」 「포오랜드」 「르마니아」, 「유고스라비아」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바 北韓도 그런 先進共産国의 形態를 가지게 될 것으로 筆者는 展望한다.

Ⅵ. 맺는 말 —— 우리의 対応

全体主義的 統制社会를 <죠지. 오웰>의 作品 「1984年」이 想像한 程度로 完成한 金日成政権과 南北対話를 하는 우리政府는 東方政策을 추구하는 西独政府와는 比較도 안될 여러가지 어려움을 直面하고 있다.

南北対話를 金日成政権은 経済的 어려움과 外交的 孤立状態를 벗어나는 방편으로 利用하고 있으며 또 住民統制를 強化할 口実로 삼고 있다. 앞으로도 北韓의 住民統制는 強化될 것이고 南北交渉에 관한 모든 情報를 조작할 것이다.

이런 統制社会와 対決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統制化를 強力히 推進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우리가 北韓社会体制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점인데 "우리도 北韓을 이기기 위해서는 北韓을 닮아야 한다"는 理論은 成立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統一問題를 民族의 長期指標로 삼고 操作 (Manipulation)에 의해서가 아니라 自発的 (Motivation)으로 世論의 一致(Consesus)를 봄으로서 国民統合 (Natonal integration)을 完成하는 方向으로 南北対話를 이끌어 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急速한 近代化推進으로 派生된 地方間, 階層間, 宗教間, 世代間의 間隔을 좁히는데 앞으로의 経済. 社会政策의 求心点을 統一이라는 큰 座標에 두어 精神的 一体感을 共有할 수 있도록 努力만 지속한다면 北韓에 豫期할 수 있는 혹 豫想못할 変化가 올때 그 変化는 우리에게 有利하게 作用할 것으로 믿는다.

발행일자	1973년7월 일
발간업체명	주식회사 서라벌문예사
대표자	김 재 성
인가근거	내이 515.2-10803 (70.5.21)
참여자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이 원 설

正 誤 表

페지	行	誤	訂
3	7	정도／즉	정도－즉
3	9	「1904」	「1984」
6	6	(Control) 은	(Contnol)는
9	5	부디치게	부딪치게
10	주 8)	Ibid.	Ibid ______
11	10	줌으로서	줌으로써
12	1	크레므린	크레믈린
14	6	크레므	크레믈
22	11	격 열	격 렬
25	16	神的,	神的
26	2	(Theught)	(ThougHt)
26	7	빛 나는	빛나는
28	11	희생제불	희생제물
28	20	되는	하는
29	19	관한 勤労新聞	관한 北韓의 勤労新聞
30	13	받은〃것을 마치	받은것〃을 마치〃
32	5	始発点은	始発点을
35	12	70	700
37	2	다분이	다분히
38	6	기금까	지금까
40	2	지적했드시	지적했듯이
40	9	〉은 스페인의	〉는 스페인의
40	14	것이 던	것이 든
41	6	등한이	등한히
42	2	가이	가히
42	7	크레므린	크레믈린
42	16	더부러	더불어
46	4	본다.	본다.」
50	9	이러날	일어날
51	13	「크레므린」	「크레믈린」
51	17	빗고야	빚고야
53	2	할런지	할른지
53	20	가운대	가운데
55	2	「1984年」이	「1984」
55	17	나기야	나가야